

「萬葉集」에 나타난 婚姻形態에서 본 抒情

金 成 俸*

目 次	
I. 序論	2. 近親婚
II. 婚前交渉에서 본 抒情	3. 現地妻
III. 求婚方式에서 본 抒情	4. 同居
IV. 婚姻形態에서 본 抒情	5. 離婚
1. 「妻問い婚」	V. 結論

I. 序 論

文學의 本質을 한 마디로 表現하는 것은 어렵지만 生活을 떠나서 文學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結局 人間生活의 여러 狀態를 探求하는 것이 文學이다.

그리고 生活環境으로서의 自然이라든가 家庭이라든가 社會, 思想 等 그 밖에 여러가지 것이 생각되겠지만, 實際 人間生活에서 배놓을 수 없는 것은 男女의 關係가 아닌가 싶다.

이런 點에서 볼때 上代 文學을 理解하는데 가장 重要한 것은 그 當時 男女의 婚姻形態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 보고자 하는 「萬葉集」에는 傳說·叙事詩·叙景詩·物語詩·民謠·日記·

* 人文大學 專任講師

紀行·書翰·隨筆·評論 等の混入이 있지만 그래도 「萬葉集」의 價値를 決定하는 重要한 部分은 確實히 抒情的인 것이다.¹⁾

따라서, 本稿는 어디까지나 文學研究의 範圍內에서 「萬葉集」에 나타난 婚姻形態에서 抒情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래서, 婚姻形態의 全貌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側面에서 보는 方法인

「一は年代的に縦に觀る方法であり、一は空間的に横に觀る方法である。即ち、前者は共同婚、團體婚、掠奪婚、賣買婚、契約婚等の婚姻史であり、後者は家族婚、招婿婚、許嫁婚、定期婚、試驗婚、逆縁婚、遞次婚、待孕婚等の婚姻相である。」²⁾

와 같은 細細한 民俗學的인 分類에 의한 考察을 피하고, 여기서는 日本人들이 概括的으로 이야기 하는 婚姻形態, 例를 들면 奈良時代에는 「妻問い婚」, 平安時代에는 「婿取婚」, 鎌倉時代를 거쳐 室町時代에는 「嫁取婚」이 行해졌다는 觀點에서 多少의 私見을 보태어 抒情을 考察하고자 한다.

Ⅱ. 婚前交渉에서 본 抒情

男女가 結婚하기 위해서는 우선 男女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開放된 社會가 아닌 閉鎖的인 古代社會에서 모르는 젊은 男女가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神祕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우선 「萬葉集」에서 男女의 우연한 만남을 살펴 보면,

「利根川の川瀬も知らずただ渡り 波に會ふのす會へる君かも」(萬葉 3413)

에서와 같이 놀라움으로 表現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男女 사이에 사랑이 움트고 점차 切實하게 思慕하는 마음은 그 度를 더해서,

「わが背子を何ども言はむ 武藏野のうけらが花の 時無きものを」(萬葉 3379)

「信濃なる千曲の川の細石も 君し踏みてば 玉と拾はむ」(萬葉 3400)

와 같이 수많은 사랑의 讚歌가 誕生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안 處女가

1) 岡崎義恵, “萬葉集における抒情の展開”, 「國文學 解釋と鑑賞」, 至文堂, 1955. 9, pp. 28.

2) 中山太郎, 「萬葉集の民俗學的研究」, パルトス社, 1983, p. 26.

「筑波嶺の新桑蔦の衣はあれど 君が御衣しあやに着欲しも」(萬葉 3350)

에서와 같이 結婚의 期待에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푼 結婚의 期待도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戀愛나 婚姻의 自由를 妨害하는 要素는 現代社會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妨害要素는 다르겠지만 萬葉時代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當時의 妨害要素를 살펴보면, 첫째,

「人言をしげみか 君が二軒の家を隔てて戀ひつつまきむ」(萬葉 685)

以外에도 「萬葉集」의 538·541·630·647·659·660·730 등에 나타난 「人言」와

「うつせみの人目を繁み 石橋の間近き君に戀ひ渡るかも」(萬葉 597)

以外에도 「萬葉集」의 2359·3490 등에 나타난 「人目」 등의 社會的인 障礙와 壓迫이다. 그래서 위의 노래에서와 같이 社會的인 妨害要素인 「人言」과 「人目」 등을 꺼려했기 때문에 萬葉의 戀人들은 사랑의 情熱을 억누르고, 사랑에 괴로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古代 萬葉人들은 「人言」· 「人目」를 꺼려했는가 하면,

「名を單なる符徴とは見てゐない。人格の一部であると考へた。彼等は或る人と接觸した具體的な物體を通して、その人に呪術的に危害を與へ得るものと信じてゐたと同じく、その人の名前を通して、その人を支配することが出来るものと思惟した。だから名前を知らせることは、自分をその人の勢力下に置くことになる。……」³⁾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古代 日本人에게는 이름은 格別하게 重要な 意義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古代의 閉鎖的인 社會에 있어서 터무니 없이 이름이 내세워 지는 것은 그 社會에서 疎外되는 것이고 자칫하면 죽음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魂合はば相寢むものを 小山田の鹿猪田守るごと母し守らすも」(萬葉 3000)

에서와 같이 男女 서로 마음이 通했기 때문에 男子의 要求에 應해서 同寢도 할 수 있는데, 어머

3) 竹野長次, “古代社會”, 「國文學 解釋と鑑賞」, 至文堂, 1955. 9, pp. 10.

4) 伊藤博, 「萬葉集相關の世界」, 塙選書, 1974, p. 74.

니의 嚴重한 監視下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行動할 수 없다라는 것을 恨歎하고 있듯이, 이것은, 家父長制의 進行中에서 母親이 一家의 經濟的 權力을 쥐고 있던 母系制의 遺風으로 母親이 子女의 監督權을 쥐고 그 子女의 戀愛나 結婚에 干涉한 母親의 監視의 念이다. 以外에도 「萬葉集」의 2364·2527·2557·2570 등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여러가지 障害와 壓力 앞에 屈服해 버렸다면 사랑의 終末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結婚이라는 單語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萬葉集」에는 「人言」「人目」 등의 社會的 障害要素와 母親의 監視를

「わが背子し逃げむと言はば 人言はしげくありとも出でて會はましを」(萬葉 539)

「駿河の海磯邊に生ふる浜つづら 汝を頼み母に違ひぬ」(萬葉 3359)

「筑波嶺の彼面比面に守部据え 母に守れども 魂ぞ合ひにける」(萬葉 3393)

에서와 같이 克服한 것을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結果 世上의 시끄러운 소문 등과 對決을 覺悟하지 않으면 안되고 잘못하면 世上에서 疎外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悲運도 맞이할 것이다.

Ⅲ. 求婚方式에서 본 抒情

古代 萬葉時代에도 오늘날 男女가 自由戀愛 또는 중매장의 紹介로 結婚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그러면, 우선 중매혼이 있었다는 것은

「奈良時代にあつては、「戸令」に媒酌人の事が規定されて居り、社會通念としても媒酌人の有無を以て、公婚と私通との標準としたのである」⁵⁾

라는 것과 「萬葉集」에

「我妹子を相知らしめし人をこそ 戀のまされば恨めしみ思へ」(萬葉 494)

라는 노래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노래에서 사랑을 알게 해 준 媒酌人을 感謝하기는 커녕 願望하고 있다는 것은 自由戀愛하여 自己가 女性을 擇하였다면 願望도 하지 않을 것인데,

5) 中山太郎, 前掲書, p. 43.

媒酌人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혹시 무엇이 잘못되면 第三者인 媒酌人을 願望하는 人間心理의 抒情의 노래가 아닌가 싶다.

그 다음에 媒酌人을 必要로 하지 않는 自由婚에 대해서 살펴 보면, 古代 日本人은

「……夜は安き寝もねず、闇の夜に出でて穴をくじり、かいま見まどひあへり、さる時よりなむよばひとはいひける。」⁶⁾

에서와 같이 「かいまみ」해서 「よばひ」를 한다는 것인데, 「萬葉集」에서도

「あらたまのす戸が竹垣 編目ゆも妹し見えなば われ戀ひめやも」(萬葉 2530)
「花ぐはし葦垣越しにただ一目相見し子ゆゑ 千度嘆きつ」(萬葉 2565)

에서와 같이 「かいまみ」를 해서,

「……すすし競ひ 相よばひしける時は……」(萬葉 1809)
「他國によばひに行きて……」(萬葉 2906)
「こもりくの泊瀬小園によばひせずわが天皇よ……」(萬葉 3312)

에서와 같이 「よばひ」를 한다. 그러면, 古代人의 求婚方式인 「よばひ」의 意味를 보면

「求婚を表示する慣習であり、また、その後の婚姻生活を意味していた。つまり、男は求婚しようとする相手に名のりを求め、女は心を許す者の場合にのみ自分の名をうちあげた。こうしてお互いに名のりあうことで戀愛が成立し、これによって男が女の家に通うことが許され、婚姻が成立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慣習は、人の名を生命と同じものとして考える古い觀念に基づくものであった。」⁷⁾

라는 것에서 相對의 이름을 묻는 것이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求婚方式이 反映된 노래를 「萬葉集」에서 찾아 보면, 有名な 卷頭の 雄略天皇의 御製歌

「籠もよ み籠持ち 掘串もよ み掘串持ち この丘に 菜摘ます子 家告らせ 名告らさね そらみつ 大和の國は おしなべて われこそ居れ しきなべて われこそ座せ われこそは 告らめ 家をも名をも」(萬葉 1)

6) 三谷榮一, 「竹取物語評解」, 有精堂, 1975, p. 128.

7) 大島建彦外 5人編,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1982, p. 59.

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노래에서 雄略天皇이 娘子에게 이름을 묻는 것은 「よばひ」의 意味에서 본 것과 같이 求婚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當時의 女性은 男性이 求婚했을 때 相對가 호감스럽게 생각되어도 한 번쯤 拒否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前段에서 天皇이 温和하게 娘子의 이름을 묻는 것에 娘子가 고분고분하게 對答하였다면, 두 사람 사이에 結婚의 約束이 成立하기 때문에 後段에서와 같이 天皇이 興奮해서 말을 계속할 必要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여튼 興奮해서 말한 後段의 天皇의 權力을 全部 듣고 난 後娘子가 이름을 털어 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娘子의 應答이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경사스러운 結婚이 成立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求婚歌가 相聞에 屬하지 않고 雜歌의 分類로 되어있는 것은 이 求婚은 私的·個人的인 求婚이 아니고 天皇으로서의 求婚이기 때문이다.⁸⁾ 以外에도 『萬葉集』에는 362·2497·2747·3076·3177 等에도 이름을 相對에게 告하는 것의 爲해서 마음을 許諾하고 結婚을 承諾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相對에게 結婚을 承諾한 다음에는 그 證據로 禮物을 交換하는 일을 오늘날에는 結納이라고 말하는데 그 本來의 意味를 보면,

「結納は本來ユイモノ(結いの物)、すなわち二軒のイエが婚姻による新たな姻戚關係を結ぶために共同で飲食する酒肴を意味したといわれる。また、姻戚をユイシュということがあるように、婚姻によってユイの關係を強化する意味で、ユイノモノの共同飲食が行なわれたのだともいわれる」⁹⁾

라는 것에서 볼 때 結納의 品物은 오늘날의 金錢 等の 種類가 아니고 酒食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點은 『萬葉集』에서 살펴 볼 수 없는 것 같다.

다음에는 求婚을 包含한 「よばひ」의 訪問에 대해서 살펴 보면,

「男が娘の寢所にもぐりこむばあいと、娘を戸外へ呼び出す方法とがあった」¹⁰⁾

라는 것과 같이 두 가지 方法이 있는데, 『萬葉集』에서도 前者에 屬하는

「妹が寝る床のあたりに 岩ぐる水にもがもよ 入りて寝まくも」(萬葉 3554)

와 後者에 屬하는

8) 大曾根章介外 5人編, 「萬葉・歌謠」第五卷, 明治書院, p. 51.

9) 大島建彦外 5人編, 前掲書, p. 58.

10) 藤井貞和, 「物語の結婚」, 倉樹社, 1985, p. 86.

「道の邊の草を冬野に踏み枯らし われ立ち待つと妹に告げこそ」(萬葉 2776)

등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性交渉을 前提로 하는 未婚男女의 交遊인 「よぼひ」의 習俗은 古代의 閉鎖的인 社會에서는 모두 自由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萬葉集』에서 살펴 보면, 「妻争い型」의 傳説로 有名한 菟原處女の 이야기(萬葉 1809~1811 高橋蟲麻呂歌集) 속에서 菟原處女에게 같은 村落에 살고 있는 菟原壯士와 다른 村落에 살고 있는 血沼壯士가 猛烈하게 다투면서 서로 求婚했을 때, 菟原處女가 어머니에게 말한

「賤しきがゆゑ ますらをの 争ふ見れば 生けりとも 會ふべくあれや しくしろ 黄泉に 待たむと…」(萬葉 1809)

라는 部分이 菟原處女가 自殺한 理由라고 하지만 실은 다음의 노래를 보면,

「墓の上の木の枝なびけり 聞きごと 血沼壯士にし寄りにけらしも」(萬葉 1811)

에서 菟原處女는 두 青年 中에서 다른 村落에 살고 있는 血沼壯士에게 더 關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菟原處女가 自殺한 것은 다른 村落의 男性과 交遊하는 것을 許諾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悲劇인 것이다.

이런 點에서 볼 때, 「よぼひ」의 通婚圈은 村落 內에서 하는 것이 通常이기 때문에 다른 村落의 異性과 交遊을 하면 심한 制裁가 加해진 것 같다.

그래서 위와 같이 다른 村落의 사람과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悲劇의 노래가 나오고, 또

「他國に求婚に行きて 大刀が緒もいまだ解かねばさ夜ぞ明けにける」(萬葉 2906)

와 같이 他郷에 求婚하러 가는 것의 어려움을 恨歎하는 抒情의 노래가 나오게 된 것이다.

IV. 婚姻形態에서 본 抒情

1. 「妻問い婚」

序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奈良時代에는 「妻問い婚」이 行해졌다고 하는데, 그 「妻問い婚」이란

「婚姻が成立しても、ただちに妻が夫の家に引き移るのではなくて、妻はそのまま實家なり妻方で定められた住居、あるいは娘宿のような寢宿に起居していて、夫がそこを訪れることにより夫婦生活が行なわれるという、一時的訪婚の形をとるのである。」¹¹⁾

라는 것에서 男子와 女子는 結婚해도 夫婦別居하면서 男便이 아내의 집을 訪問하는 婚制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그 當時의 民俗을 「萬葉集」에서 찾아 보면,

「こもりくの泊瀬小園に妻しあれば 石は踏めどもなほし來にけり」(萬葉 3311)

「直に行かず此ゆ巨勢路から石瀬踏み 求めぞ吾が來し 戀ひてすべなみ」(萬葉 3320)

와 같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婚姻은 男便이 만나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例를 「萬葉集」에서 찾아 보면,

「眞澄鏡見とも言はめや 王かざる石垣瀬の 隠りたる妻」(萬葉 2509)

「人言のしげき問守りて會ふともや なほわが上に言のしげけむ」(萬葉 2561)

「天飛ぶや輕の社の齋槻 幾代まであらむ 隠妻ぞも」(萬葉 2656)

「しなが鳥狹名山響に行く水の 名のみ寄さえし隠妻はも」(萬葉 2708)

에서와 같이, 男便이 아내를 訪問하는 것은 남의 耳目에 굉장한 神經을 써 抑制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만큼 抑制하고 있는가 하면,

「天飛ぶや 輕の道は 我妹子が 里にしあれば ねもころに 見まく欲しけど やまざりかば 人目を多み まなく行かば 人知りぬべみ……………妹は 黃葉の 過ぎて去にきと 玉梓の 使の言へば 梓弓 聲に聞きて…………… あり得ねば…………… 我妹子が 止まず出で見し 輕の 市に わが立ち 聞けば……………鳴く鳥の聲も聞えず……………」(萬葉 207)

에서와 같이 사랑스런 아내를 만나고 싶은데 耳目 때문에 抑制하고 있는 사이에 아내가 죽었다는

11) 大島建彦外 5人編, 前掲書, p. 19.

傳喝을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남의 耳目 때문에 아내에게 가 볼 수 없는 心情을 노래하고 있는 것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또, 이러한 抑制 속에서도 만약 만난다고 해도 역시 남의 耳目에 神經을 썩 대낮이 아니고 해가 진 저녁에 訪問하여 하룻밤 묵고 새벽에 自己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萬葉集」에서,

「夕さらば屋戸開け設けてわれ待たむ 夢に相見に來むとふ人を」(萬葉 744)와

「朝の戸を早く開けそ あぢさはふ目が欲る君が今夜來ませる」(萬葉 2555)

등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夫婦이면서도 남의 耳目에 神經을 썩 祕密裡에 만난다는 것은 萬葉時代의 結婚에는 周圍로부터 祝福받은 結婚과 남의 눈을 피해 살짝 몰래 만난다는 두 가지 結婚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結婚은 「妻ごめ」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妻ごめ」란 妻의 집을 만들어 그곳에 妻을 杜門不出하게 하여 新婚生活이 營爲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記紀歌謠 第一의 「八重垣」의 노래,

「八雲立つ 出雲八重垣 妻籠みに 八重垣作る その八重垣を」¹²⁾

에서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이 當時의 習俗인 것 같다. 「萬葉集」에서도

「琴取れば嘆き先立つ けだしくも琴の下樋に妻や隠れる」(萬葉 1129)

「泊瀬の齋槻が下にわが隠せる妻 あかねさし照れる月夜に人見てむかも」(萬葉 2353)

以外에도 2354・2495・2509・2566・2656・2708・3312・4148. 등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夫婦別居의 結果로써 어떤 様相을 가져 왔는가 하면, 첫째, 女性은 男子가 訪問할 경우 拒絶하려고 한다면 家の 門을 열어 주지 않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子弟의 教育과 財産의 管理라는 面에서 女性의 主體性은 相當히 確保되어 있었다¹³⁾고 생각되지만 「萬葉集」에서는 門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고 大部分이

「夕さらば屋戸開け設けてわれ待たむ 夢に相見に來むとふ人を」(萬葉 744)

와 같이 門을 열어 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다. 더구나

12) 倉野憲司・武田祐吉 校注, 「古事記祝詞」, 岩波書店, 1983, p. 89.

13) 久保昭雄, 「記紀・萬葉の女性」, 武藏野書院, 1988, p. 74.

「夕されば君來まさむと待ちし夜のなごりぞ 今も寝ねかてにする」(萬葉 2588)

와 같이 男便이 올까 싶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女性은 男便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 弊習을 남게 되었다. 따라서, 萬葉時代의 女性은 男便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 存在이기 때문에 『萬葉集』의 戀歌 속에는

「海人小船泊瀬の山に降る雪の 日長く戀ひし君が音ぞする」(萬葉 2347)

「磯城島の大和の國に 人二人ありとし思はば 何か嘆かむ」(萬葉 3249)

「……………神もはなはだ わが思ふ 心知らずや 行く影の 月も經行けば 玉かぎる 日も重なり 思へかも 胸安からぬ 戀ふれかも 心の痛き 末つひに 君に會はずは わが命の 生けらむ 極み 戀ひつつも われは渡らむ 眞澄鏡 正目に君を 相見てばこそ わが戀止まめ」(萬葉 3250)

에서와 같이 大部分이 戀人을 만날 수 없는 것을 恨歎한다든지 男便이 오는 것을 숨을 죽이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女性의 苦悶하는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리고 『萬葉集』에는 이와 같이 기다리는 存在의 悲慘한 삶 以外에도,

「つぎねふ 山城路を 人夫の 馬より行くに 己夫し 歩より行けば 見るごとに 音のみし泣かゆ そこ思ふに 心し痛し たらちねの 母が形見と わが持てる 眞澄鏡に 蜻蛉頭巾 負ひ並め持ちて 馬買へわが夫」(萬葉 3314)

에서와 같이 女性은 男便을 위하여 利害打算도 없는 많은 獻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男便을 위하여 獻身하고 기다리는 女性이

「あらたまの年の緒長く 何時までかわが戀ひをらむ 命知らずて」(萬葉 2935)

와 같이 기다려도 男便의 愛情이 식었는지 어쨌든 男便의 訪問이 杜絶된 경우에,

「かくしつわが待つしるしあらぬかも 世の人皆の常ならなくに」(萬葉 2585)

에서와 같이 기다리는 보람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男便을 기다리는 수밖에 方法이 없기 때문에 女性은 諦念하지 않고 서로의 復活을 기다리고 애써 만날 수 있는 날까지 꿈(夢)에 서라도 男便의 모습을 계속 보고싶어 하는 願望의 모습은 『萬葉集』에서 꿈(夢)을 노래한 卷二(3

首) · 卷四(21首) · 卷五(3首) · 卷七(3首) · 卷八(1首) · 卷九(2首) · 卷十(2首) · 卷十一(19首) · 卷十二(25首) · 卷十三(5首) · 卷十四(1首) · 卷十五(六首) · 卷十七(七首) · 卷十九(1首) · 卷二十(1首) 總 100首 中에서 156 · 175 · 852 等の 노래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사랑의 노래인데 그 中에서도

「うつつには更にも得言はじ 夢にだに妹が手本をまき寝とし見ば」(萬葉 784)

「現には會ふよしもなし むばたまの夜の夢にを繼ぎて見えこそ」(萬葉 807)

「現には會ふよしもなし 夢にだに問なく見え君戀に死ぬべし」(萬葉 2544)

以外에도 2850 · 2958 · 2959 등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꿈이 잘 나타나기 위한 方法으로 옷깃을 되접어 자면 꿈 속에 그리운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自己의 생각이 相對에게 通한다고 믿어지는 古代의 呪的習俗¹⁴⁾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萬葉集」에서 보면,

「我妹子に戀ひて術無み 白たへの袖返ししは 夢に見えきや」(萬葉 2812)

「わが背子が袖返す夜の夢ならし まことも君に會へりしごとし」(萬葉 2813)

「白たへの袖折り返し 戀ふればか 妹が姿の夢にし見ゆる」(萬葉 2937)

와 같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呪的習俗은 後世에도 전해져 「古今集」에도

「いとせめて戀しきときはむばたまの夜の衣を反してぞ着る」¹⁵⁾

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도

「夢の會は苦しかりけり おどろきてかき探れども手にも觸れねば」(萬葉 741)

에서와 같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느껴 結局은 기다리는 것도 지쳐

「今は吾は死なむよ我妹 會はずして思ひ渡れば 安けくもなし」(萬葉 2869)

「里人も語り繼ぐがね よしえやし戀ひても死なむ誰が名ならめや」(萬葉 2873)

「ますらをの聴き心も今はなし 戀の奴にわれは死ぬべし」(萬葉 2907)

以外에도 2936 · 3298 · 3491 등에서 죽어야겠다는 心情으로 連結되는 萬葉女性들의 悲慘한 사랑

14) 竹野長次, 前掲書, pp. 9.

15) 谷鼎, 「古今和歌評解」, 有精堂, 1979, p. 257.

을 엿볼 수 있다. 둘째, 男子는 多妻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萬葉集』에서 보면, 家持의 생각나는 妻는 坂上家太郎女(坂上家太郎女가 家持에게 11首, 家持가 坂上家太郎女에게 44首)이지만, 家持와 깊게 戀歌의 贈答을 하고 있는 女性을 보면 笠女郎(笠女郎가 家持에게 29首, 家持가 笠女郎에게 2首), 紀女郎(紀女郎 家持에게 5首, 家持가 紀女郎에게 11首)와, 以外에도 中臣女郎, 平群氏女郎, 河内百枝娘子, 栗田娘子와 通하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 男子는 한 명의 女性에게만 通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女性들은 男便이 오지 않는 밤은

「眠も寝ずに吾が思ふ君は 何處邊に今夜誰とか待てど來まさぬ」(萬葉 3277)

에서와 같이 男便이 누구와 함께 있을까하고 不安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男子는 남의 妻와 서로가 눈이 맞아 애타게 남몰래 贈答하는

「おほろかにわれし思はば 人妻にありとふ妹に戀ひつつあらめや」(萬葉 2909)

의 노래 속에는 남의 妻에 대한 사랑은 禁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女性도 男便이 죽거나 헤어졌을 때는 다른 男子와 몇 번이나 因緣을 맺을 수 있고 男子도 이와 같은 女性에게 求婚할 수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萬葉集』의 528番의 左注를 보면

「右、郎女は、佐保大納言卿の女そ。初め一品穗積皇子に嫁ぎ、寵びをうくること儻なし。皇子薨りましし後、藤原磨大夫この郎女を聘ふ。郎女は、坂上の里に家む。よりて族氏號けて坂上郎女といふ。」

에서 잘 엿볼 수 있다.

2. 近親婚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兄弟끼리 結婚한다는 것은 想像도 못할 일이지만 『萬葉集』에서는 近親婚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萬葉集』에는 어떤 近親婚 様相을 엿볼 수 있는가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父親은 모두 天武天皇이지만 母親이 다른 高市皇子¹⁶⁾와 穗積皇子¹⁷⁾와 但馬皇女¹⁸⁾와 十

16) 夫는 天武天皇, 母는 尼子娘.

17) 夫는 天武天皇, 母는 大薙娘.

18) 夫는 天武天皇, 母는 氷上娘.

市皇女¹⁹⁾에 대해서 살펴 보면,

但馬皇女 高市皇子の宮に在す時に、穗積皇子を思ふ御作歌一首
 「秋の田の穂向の寄れること寄りに君に寄りなな事病かりとも」(萬葉 114)
 穗積皇子に勅して近江の志賀の山寺に遣しし時、但馬皇女の作りませる御歌一首
 「後れ居て戀ひつつあらずは追ひ及かむ道のくまみに標結へわが夫」(萬葉 115)
 但馬皇女、高市皇子の宮に在す時ひそかに穂積皇子に接ひて事すでにあらはれて作りましし御歌
 一首
 「人言を繁みこちたみおのが世にいまだ渡らぬ朝川渡る」(萬葉 116)

위들 노래에서 但馬皇女가 異母兄인 高市皇子의 妃로서 그 後宮에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萬葉時代에는 父親은 같지만 母親이 서로 다르면 結婚이 可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異母兄과 結婚한 但馬皇女는 有夫女이면서도, 他人이 아닌 또 다른 異母兄인 穗積皇子와 激烈한 戀愛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노래에서는 萬葉人의 複雑한 人間關係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人間 世上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의 三角關係로 인한 苦惱와 葛藤은 변하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他人끼리의 三角關係가 아니고 兄弟끼리의 三角關係인 것이다. 예를 든 노래 114에서 남의 구설에도 상관없이 오로지 님에게 쏘리고 싶다라는 表現과 115에서 당신의 뒤를 쫓아가 따라가고 싶다라는 表現에서 穂積皇子보다 有夫女인 但馬皇女가 積極的이고 情熱的으로 行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當時의 男便인 高市皇子가 異母兄弟인 十市皇女에게 戀情을 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양갈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16의 詞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둘 사이의 情熱的인 사랑의 私通도 世上에 알려졌다는 것은 高市皇子의 귀에도 들어 간 것이다. 그런데, 그 當時 高市皇子가 十市皇女の 죽음을 슬퍼한 노래,

十市皇女薨りましし時、高市皇子尊の御作歌三首
 「三諸の神の神杉夢にだに見むとすれども寝ねぬ夜ぞ多き」(萬葉 156)

에서 볼 때, 高市皇子도 但馬皇女와 마찬가지로 妃인 但馬皇女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어머니의 동생인 十市皇女와 깊은 戀愛關係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高市皇子는 十市皇女와 因緣도 맺지 못하였는데, 156의 詞書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戀情을 품고 있는 十市皇女는 죽어 버렸고, 더구나 이와 같이 十市皇女에게 한눈팔고 있는 사이에 家庭에는 妃인 但馬皇女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異母弟인 穂積皇子와 密通問題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 當時 高市皇子의 心情은 우울하고 괴로운 나날이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心情 속에서도 自己의 不貞때문인

19) 夫는 天武天皇, 母는 額田王.

지는 모르지만 妻의 不貞에 대해서 알면서도 『萬葉集』에는 高市皇子가 但馬皇女와 穗積皇子에게 處罰을 要求하는 아무런 노래도 보이지 않고, 다만 116의 詞書에서 본 것과 같이 온 世上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當然히 朝廷에도 알고 있을 터인데, 115의 詞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穗積皇子に勅して近江の志賀の山寺に遣けす時、」라는 事項이 어떤 理由인지 明白하지 않지 않지만 『萬葉集』에서 볼 때 116의 詞書 「ひそかに穗積皇子に接ひて事すでにあらはれて」라는 理由라면 이것은 그 當時 큰 罪는 되지 않았고 叱責에 불과한 것 같다. 왜냐하면 穗積皇子가 下命받아 派遣된 곳은 流配地도 아니고 그 當時 서울(京都) 부근의 山寺인 것으로 보아 그렇게 본다. 以上으로 살펴 본 바 萬葉時代는 父親은 같더라도 母親이 다르면 戀愛나 結婚은 容易하게 認定되었고, sibling 結婚된 몸이라도 相對가 같은 어머니가 아니면 큰 罪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古事記に曰はく、輕太子、輕太郞女に好く。故に、その太子を伊豫の湯に流す。この時、衣通王戀慕に堪へずして追ひ往く時の歌に曰はく、

「君が行日長くなりぬ 山たづの迎へを行かむ待つには待たじ」(萬葉 90)

……また曰はく、遠飛鳥宮に天の下知らしめし雄朝嬌稚子宿禰天皇の二十三年春正月甲子朔庚子、木梨輕皇子を太子となす。容姿佳麗しく、見る者自ら感づ、同母妹輕太郞皇女もまた艶妙云々、遂にひそかに通ふ。すなはち悵懐少しく息みぬ。二十四年夏六月、御羹汁凝りて氷となる。天皇異しびて、その所由をトへしむ。ト者の曰さく、内の亂あり。けだし親々相奸けたるか云々。よりて太娘皇女を伊豫に移すといへれば…

에서 輕皇子²⁰⁾와 輕郎女²¹⁾의 結婚은 不倫의 戀愛로서 許諾하지 않을 뿐더러 重한 處罰을 받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父親은 다르지만 母親이 같다는 近親相姦에 該當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結果는 輕皇子는 皇太子이기 때문에 重한 處罰을 받지 않고 여동생 輕皇女만 伊豫에 流配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그 當時 被害보는 쪽은 女性인 것이다.

以上에서 볼 때, 萬葉時代는 皇室 血統의 汚를 이어받은 高貴한 地位에 있는 者라도 同母兄弟끼리의 사랑은 不倫으로 許諾되지 않기 때문에 격렬한 사랑도 結局은 가슴 아픈 悲劇으로 끝나는 것이다.

3. 現地妻

오늘날에는 夫婦가 같이 살다가 갑자기 男便의 職場이 轉補가 되어 같이 갈 수 없는 경우에 夫

20) 夫는 允恭天皇, 母는 阿閉皇女.

21) 夫는 天武天皇의 皇太子인 草壁皇子, 母는 阿閉皇女.

婦別居가 된다면 男子들 全部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男子가 現地の 女子와 눈이 맞아 同居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法律으로써도 認定되지 않고 本妻가 알 경우 잘못하면 監房가는 신세도 되겠지만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다.

그러면 「萬葉集」에서 위와 비슷하게 地方에 赴任한 男性들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萬葉集」에 나타나 있는 人名 중에서 地方에 派遣된 官人은 藤原宇合(常陸の國守として安房・上總・下總の按察使)²²⁾와 石川君子(播磨の國守)²³⁾와 大伴旅人(大將軍として筑紫に派遣)²⁴⁾과 그리고 振宿禰田向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振宿禰田向이 筑紫國를 떠날 때 지은 노래 1766의 左注를 보면,

「抜氣大首、筑紫に任せし時、豊前國の娘女紐兒を娶きて作る歌」

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이 赴任한 곳에 現地妻를 둔 것이다.

그런데, 그 當時 상당한 高官이 아니면 妻子同伴의 赴任은 할 수 없었던²⁵⁾ 時節에 地方에 혼자 내려간 官人들이 派遣任期 동안 身邊의 不便이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하여 現地妻를 둔 것 같다. 왜냐하면, 「萬葉集」에는

藤原守合大夫、遷任して京による時、常陸娘子の贈る歌
「庭に立つ麻手刈り于し布さらす東女を忘れたまふな」(萬葉 521)

石川大夫の任を遷さえて京に上る時、播磨娘子の贈る歌二首
「君なくは何ぞ身装はむ 櫛笄なる黃楊の小櫛も取らむとも思はず」(萬葉 1777)

에서와 같이 地方에 派遣된 官人들의 現地妻가 된 시골의 女性들은 任期가 다 되어 돌아가는 男性들에게 哀切한 사랑의 하소연을 하지만 떠나는 男性들은 女性에게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도 남기고 있지 않다라는 點에서 그렇게 본다.

따라서, 任期를 끝마치고 그리운 故郷으로 돌아가는 男性은 기쁜 마음이겠지만, 그 當時 시골 女性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時代이기 때문에 男性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地方으로 派遣된 官人은 任期를 끝마치면 두 번 다시 같은 地方으로 派遣이 되지 않기²⁶⁾ 때문에 시골에서 勞動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女性들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가슴 아픈 悲劇판인

22) 櫻井滿譯注, 「萬葉集(上)」, 旺文社, 1974, p. 517.

23) 上掲書, p. 478.

24) 上掲書, p. 486.

25) 服部喜美子, 「萬葉女流歌人の研究」, 櫻楓社, 1985, p. 216.

26) 上掲書, p. 219.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이 地方에 派遣된 男性들이 그 地方에서 現地妻를 둔 것을 서울에 있는 本妻에게 發覺이 되면, 그 當時 女性들은 旅行이 어려운 狀況인데도 불구하고,

先妻、夫君の喚使を待たず、自ら來りし時に作る歌一首

「左夫流兒が齋きし殿に 鈴掛けぬ驛馬下れり 里もとどろに」(萬葉 4110)

에서와 같이 男便의 바람기를 團東하러 男便이 派遣된 任國에 내려가는 것으로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女性들은 男便이 바람 피우는 것을 참지 못하였던 것 같다.

4. 同居

前述한 바와 같이 萬葉時代는 男女 사이에 結婚이 成立해도 男便이 아내의 집을 訪問하는 「妻問い婚」이 一般的인 習俗이었다. 따라서 「萬葉集」의 殆半을 차지하는 相聞歌는 실로 夫婦別居의 風俗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萬葉集」에서는 夫婦同居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君が家に吾が住坂の家道をも吾は忘れじ命死なずは」(萬葉 504)

라는 노래에서 볼 때 「君は吾の誤り、吾は君の誤りではあるまいか」²⁷⁾라는 學者도 있지만 文字대로 理解하면 女는 男便의 집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奈良時代에 아내가 男便 집에 결코 살지 않았다는 證據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同居하고 있던 夫婦는 어떤 浪漫을 가졌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情熱은 身邊 경치의 美意識으로 連結되어

「去年見てし秋の月夜は照らせれど相見し妹はいや年さかる」(萬葉 211)

에서와 같이 달을 鑑賞하는 것이다.

그런 點에서 볼 때, 夫婦同居라는 새로운 生活의 小世界는 그 當時 萬葉人에게 新鮮한 사랑의 스타일(Style)로 感動을 준 것 같지만 「萬葉集」에서는 夫婦同居婚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27) 藤井貞和, 前掲書, p. 103.

5. 離婚

離婚의 條件으로서는 『萬葉集』 4106의 詞書에

七出の例に云はく、
 但し一條を犯せらば、即ら出すべし。七出無くて亂く棄つる者は、徒一年半ならむといふ。
 三不去に云はく、
 七出を犯せりとも棄つべからず。違へる者は杖一百ならむ。唯奸を犯せると惡疾とは棄つること得むといふ。
 兩妻の例に云はく、
 妻有り更に娶る者は、徒一年、女家は杖一百して離てといふ。

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時代의 女性들은 여러가지 制約 속에서 結婚한 것이다. 따라서 『萬葉集』에는 위와 같은 矛盾에 反發하는 女性의 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萬葉集』에서 離婚이 된 歌人을 살펴 보면,

中臣朝臣宅守、藏部の女孀狹野弟上娘子を娶きし時に、勅して流罪に斷じて、越前國に配しき
 。ここに夫婦の別れ易く會ひ難きを相嘆き、各各働む情を陳べて贈答する歌六十三首
 (萬葉 15卷 題詞)

에서 宅守와 娘子의 離婚事件이다. 여기서 「奸」가 아니고 「娶」인 것으로 보아 확실히 正式結婚이다. 그런데 왜 流配된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重婚으로 보는 說²⁸⁾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重婚이라면 앞의 離婚條件에서 본 바와 같이 「徒一年, 女家は杖一百」이라는 罰을 받을 터인데 그런 흔적은 없고 「勅斷流罪」라는 重刑을 받았다는 點에서 그렇게 본다. 또 「娶……時」는 時期를 나타내는 것이지 理由를 나타내는 「娶……故」가 아니기 때문에 流配의 原因은 娘子와 結婚했기 때문이 아니다.²⁹⁾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當時 雜多한 일을 하는 「藏部女孀」³⁰⁾와 結婚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當時 結婚에 대해서는 良民과 賤民의 通婚은 嚴禁되었다³¹⁾라는 身分制 社會라는 點에서 그렇게 본다. 따라서, 宅守와 娘子는 같은 職場官人으로서

28) 扇烟忠雄, “中臣宅守はなぜ流されたか”, 『國文學 解釋と鑑賞』, 至文堂, 1969. 2, pp. 81.

29) 服部喜美子, 前掲書, p. 72.

30) 上掲書, p. 77.

31) 上代文學會編, 『萬葉の女人像』, 笠間書院, 1976, p. 98.

兩子 親兄弟親族 一同이 認定한 正式結婚이라도 兩者 懸隔한 身分 差異 때문에 職場의 長인 天皇이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로 離婚된 歌人은 또,

右は、安貴王、因幡の八上采女を娶りて、係念極めて甚しく、愛情尤も盛りなり。時に勅して不敬の罪に斷め、本郷に退却く。ここに王の意、悼み但びていささかこの歌を作る。(萬葉 535의 左注)

에서 安貴王³²⁾과 采女를 들 수 있다. 安貴王의 경우도 下級雜給職인 采女와 結婚했기 때문에 不敬의 罪로 采女는 故郷으로 追放된 것이다.

以上으로 볼 때, 正式結婚이라도 身分이 懸隔하게 틀리면 離婚事由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不合理한 離婚의 結果 「萬葉集」에는 人間의 슬픈 魂의 絶唱을 吟味할 수 있다. 그것을 宅守와 娘子의 贈答歌 六十三首(3723~3785)에서 보면, 서로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如實하다. 그 中에 娘子를 그리워 하는 宅守의 노래

「思ふ故に會ふものならば しましくも妹が目離れて吾をらめやも」(萬葉 3731)

에서는 만날 수 있으면 곧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멀리 떨어져 만날 自由가 許諾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不可能한 것에 대한 悲願의 抒情을 느낄 수 있다. 이 다음의 노래

「あかねさす晝は物思ひ ぬばたまの夜はすがらに音のみし泣かゆ」(萬葉 3732)

에서는 만날 수 없는 슬픔이 極致가 되어 낮과 밤 할 것 없이 슬프게 계속 우는 것이다. 人間에게 이 程度 殘酷한 하루의 生活이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宅守에게는 現實生活의 하루이다. 그에게는 每日 生地獄과 같은 生活이고 孤獨과 悲愁의 連續이 이와 같은 相聞歌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娘子 역시

「白たへの吾が下衣失はず持てれわが背子 直に會ふまでに」(萬葉 3751)

에서 죽음을 超克한 사랑의 슬픔을 목숨걸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人間에게 感動의 美를 주는 抒情의 노래는 그 當時 懸隔한 身分 差異의 結婚 結果로 생긴 悲劇 때문이다.

32) 天智天皇의 皇太子인 志貴皇子의 孫子.

V. 結 論

以上과 같이 「萬葉集」에 나타난 結婚形態에서 抒情을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1. 婚前交涉

萬葉時代의 戀人들은 「人目」·「人言」 등의 社會的 妨害要素와 母親의 監視의 念 때문에 사랑의 情熱을 억누르고, 사랑에 괴로와 하는 抒情을 느낄 수 있다.

2. 求婚方式

求婚方式인 「よぼひ」의 通婚圈은 村落 內에서 하는 것이 通常이다. 따라서, 다른 村落의 異性과 交遊를 하면 심한 制裁가 加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悲劇의 抒情을 吟味할 수 있다.

3. 婚姻形態

① 「妻問い婚」

萬葉時代는 男女가 結婚해도 夫婦 別居하면서 男便이 아내의 집을 訪問하는 「妻問い婚」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기다린다. 밖에서 기다린다.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린다.」와 같은 女性들의 노래 속에서는 男便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 슬픈 存在의 抒情을 느낄 수 있다.

② 近親婚

萬葉時代는 皇室 血統의 皮를 이어 받은 高貴한 地位에 있는 者라도 同母兄弟끼리의 사랑은 不倫으로 許諾되지 않기 때문에 激烈한 사랑도 結局 남는 것은 가슴 아픈 悲劇뿐이다.

③ 現地妻

시골 女性들은 地方에 派遣된 官人들의 現地妻가 되었지만 官人들이 任期가 되어 떠나가 버리면 시골 여성들에게 남는 것은 哀切한 抒情의 노래뿐이다.

④ 同居

萬葉時代는 夫婦別居의 「妻問い婚」이 一般의이지만 夫婦同居라는 새로운 小世界는 萬葉人에게 新鮮한 사랑의 스타일(style)로서 感動을 준 것 같다.

⑤ 離婚

萬葉時代는 懸隔한 身分 差異의 結婚은 正式으로 해도 結局은 離婚이 되고 남는 것은 人間에게 感動의 美를 주는 抒情의 노래뿐이다.

以上の 論考에서 萬葉時代의 女性은 太陽과 같은 存在가 아니다. 結婚을 해도 夫婦別居하면서 男便의 訪問을 기다려야 하는 悲慘한 存在이다. 따라서, 「萬葉集」에는 사랑과 制度와의 相剋 사에서 不安하고 괴로와 하는 哀切한 抒情을 느낄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池田彌三郎, 「日本文學と民俗」, 櫻楓社, 1975.
2. 稻岡耕二編, 「萬葉集必携」, 學燈社, 1988.
3. 伊藤博, 「萬葉集相聞の世界」, 塙選書, 1974.
4. 大曾根章介外 5人編, 「研究資料日本古典文學 第5卷 萬葉・歌謠」, 明治書院, 1985.
5. 大島建彦外 5人編,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1982.
6. 加藤靜雄, 「萬葉の歌人」, 櫻楓社, 1986.
7. 北山茂夫, 「柿本人麻呂論」, 岩波書店, 1983.
8. 北山茂夫, 「萬葉の時代」, 岩波新書, 1987.
9. 北山茂夫, 「萬葉群像」, 岩波新書, 1987.
10. 久保昭雄, 「記紀・萬葉の女性」, 武藏野書院, 1988.
11. 櫻井滿譯注, 「現代語譯對照 萬葉集」上中下, 1980.
12. 實方清, 「萬葉の美的世界」, 櫻楓社, 1979.
13. 高木博, 「萬葉の女性」, 櫻楓社, 1975.
14. 高藤武馬, 「萬葉の女たち」, 古川書房, 1973.
15. 土橋寬, 「萬葉開眼(上)」, 日本放送出版協會, 1978.
16. 窪田空穂, 「萬葉集評釋」, 東京堂出版, 1984.
17. 寺田透, 「萬葉の女流歌人」, 岩波新書, 1977.
18. 藤井貞和, 「物語の結婚」, 倉樹社, 1985.
19. 直木孝次郎外 3人, 「日本の誕生」第1卷, 小學館, 1982.
20. 中西進, 「萬葉の長歌上」, 教育出版, 1981.
21. 中西進, 「萬葉の長歌下」, 教育出版, 1981.
22. 中山太郎, 「萬葉集の民俗學的研究」, パルトス社, 1983.
23. 服部喜美子, 「萬葉女流歌人の研究」, 櫻楓社, 1985.
24. 久松潛一編, 「日本女流文學史(古代中世編)」, 精興社, 1969.
25. 久松潛一, 「萬葉集入門」, 講談社現代新書, 1987.
26. 森脇一夫, 「萬葉の美意識」, 櫻楓社, 1974.
27. 山本健吉, 「萬葉百歌」, 中央公論社, 1974.
28. 上代文學會編, 「萬葉の女人像」, 笠間書院, 1976.

29. 「國文學 解釋と鑑賞」, 至文堂, 1955. 9.

30. 「國文學 解釋と鑑賞」, 至文堂, 1969. 2.

Summary

Lyricism Seen from Marriage Phase in “Manyōshū”

Kim Sung-bong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understanding ancient literature is marriage phase between men and women in those days.

Most factors to appreciate the value of Manyōshū is quite lyrical. So we can get the following conclusion by catching hold of lyricism of marriage system in Manyōshū.

1. Premarital Sex.

On the grounds of both social interference like eyes and sayings of the world and guard of her or his mother, most lovers in Manyōshū had to suppress their passion. We can feel their suffering for love.

2. Matrimonial Method.

In that times, the sphere of marriage is the inside of the village at large.

If ever one has connection with the other sex in next villages, he will be blamed severely. In accordance with it, we can examine the tragic closely.

3. Marriage System.

1) The Marriage system of that times is that though men and women get married, they live in a separate house and husbands visit wives'.

According to “A wife is waiting and waiting outdoor. She is waiting with opening the door.”, lyricism of being to wait husbands sincerely is represented in songs of those women.

2) Consanguineous Marriage.

In those days, though he comes from the Royal Household blood and he is of high and noble social standing, he is not allowed to fall in love with blood relationship.

For that reason, sorrow only remained after their violent passion.

3) Mistress kept in one's industrial place.

A country women becomes the wife of the government official dispatched in provinces. But when he finishes his service, he leave from the service-area. So that the country

women only lay songs of pitiful lyricism up in their mind.

4) Living together.

Though those men and wives live separately, living together as a miniature universe seems to inject vigor to people of Manyōp times as a new loving style.

5) Divorce.

In those times, although men and women different in social standing are legally married, but they become to divorce after all.

The best thing to them is only lyrical songs to give deep emotion.

As a conclusion, women of manyōp Times is not being like the sun.

But their being is rather miserable to live apart from their husbands and wait their visiting.

So that, by standing on Manyōshū, we can get the sorrowful lyricism for them to suffer from interferences between social system and their affections.